

‘헤븐: 행복의 나라로’ 임상수·최민식 “힘든 시기 위로 됐으면”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 소감... 우연히 만난 두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행복 찾기 위한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화 줄거리

칸영화제에 공식 초청받은 ‘헤븐: 행복의 나라로’ (가제)의 감독과 주연 배우가 소감을 전했다.
임상수 감독은 5일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칸이 이 영화를 흥미 있게 봤다니 재미있다. 포스트 코로나의 한국 관객이 이 영화를 통해서 작은 위로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임 감독의 이번 칸 초청은 벌써 4번째다. ‘그때 그사람들’ (2005년, 감독 주간) ‘하녀’ (2010년, 장편 경쟁부문) ‘돈의 맛’ (2012년, 장편 경쟁부문)으로 진출했다.
최민식도 “칸 공식부문 초청 소식에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최민식은 “개인적인 네 번째 칸 영화제 초청의 소감보다 이 영화가 가진 의미와 주제가 국제적 관심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작품이 개봉해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힘든 시기에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고 묵직하게 소감을 남겼다.
최민식은 ‘취화선’ (2002년, 장편 경쟁부문)

‘올드보이’ (2004년, 장편 경쟁부문) ‘주먹이 운다’ (2005년, 감독 주간)에 이어 네 번째 칸의 러브콜을 받았다.
최민식은 이 영화에서 교도소 복역 중 인생 마지막 행복을 찾아 뜨거운 일탈을 감행하는 죄수번호 ‘203’을 연기한다.
박해일은 “함께 작업해 보고 싶었던 임상수 감독님과 최민식 선배님을 한꺼번에 만나 배우로서 소중한 시기를 보낸 경험이 크다”며 “두 분 및 많은 제작진 덕분에 칸 영화제라는 큰 영광을 누리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남식 역을 맡은 박해일은 ‘괴물’ (2006년, 감독 주간) 이후 두 번째로 칸에 초청됐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6시(현지시간)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임상수 감독의 ‘헤븐: 행복의 나라로’를 ‘2020 공식초청작(2020 Official Selection)’에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식적인 행사는 취소하고



영화 ‘헤븐: 행복의 나라로’ 스틸컷

대신 전 세계 56편의 영화를 ‘오피셜 셀렉션’으로 선정했다. 이 중 임 감독의 ‘헤븐: 행복의 나라로’는 9번째로 발표했다.
‘헤븐: 행복의 나라로’는 우연히 만난 두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찾기 위한 특별한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영화는 ‘돈의 맛’ ‘하녀’ ‘그때 그사람들’ ‘바람난 가족’ 등 사회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대사 및 특유의 통찰력과 유머를 선보여온 임 감독의 독특한 연출력에 최민식, 박해일의 연기 변신까지 더해져 색다른 휴먼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했다.
영화는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뉴시스

BTS 정국, 자작곡
‘Still With You’ 무료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 (BTS) 정국이 자작곡을 깜짝 공개했다. 지난 5일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작곡 ‘스틸 위드 유(Still With You)’를 선보였다. 방탄소년단이 매년 데뷔일 6월 13일 앞두고 펼치는 ‘BTS 페스타(FESTA)’의 하나다.

정국은 자신과 멤버들을 성원해준 팬덤 ‘아미’를 위해 이번 데뷔 7주년을 앞두고 새로 작업한 자작곡을 내놓았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 피독(Piggy)이 함께 작업했다.
잔잔하고 감성적인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이다. 특히 “언제쯤일까/다시 그날 마주한다면/눈을 보고 말할래요/보고 싶었어요/황홀했던 기억 속에/나 홀로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등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 눈길을 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3일 데뷔 7주년을 앞두고 ‘페스타’를 진행 중이다. 데뷔 기념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14일 오후 6시에는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를 연다. /뉴시스



비(사진 왼쪽부터), 이효리, 유재석이 댄스그룹 ‘쌉3’로 뭉쳤다.

혼성 댄스그룹 ‘쌉3’ 데뷔 임박

“7월 내 데뷔가 목표”

올 여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혼성 댄스그룹 ‘쌉3(SSAK3)’의 데뷔가 임박했다. ‘쌉3’의 소속사 ‘놀면 뭐하니?’는 오는 7월 여름 가요 대전 합류를 선언해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MBC TV 예능물 ‘놀면 뭐하니?’ 측은 5일 “유재석, 이효리, 비(정지훈)가 ‘쌉3(SSAK3)’라는 그룹으로 활동한다”며 “프로그램의 1주년을 맞이하는 7월 내 데뷔가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방송분에서는 세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뉴시스

백종원-양세형 ‘백파더’, 20일 첫 방송

MBC TV 새 예능 요리 프로그램

외식사업가 백종원의 MBC 새 예능 요리 프로그램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가 20일 첫 방송한다.

MBC TV 쌍방향 소통 요리쇼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이하 백파더)는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요린이’(요리 초보들을 일컫는 말) 경쟁 프로젝트다.

지난 5일 백파더 측은 티저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첫 번째 포스터는 인자한 모습으로 요린이를 맞이하는 ‘대부’ 백종원의 모습이 담겼다.

백종원은 검은색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매고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파, 가지, 고구마 등의 채소를 꽃다발처럼 품에 가득 안고 있다. 이는 요리의 기초 재료를 안고 요린이를 맞이하는 ‘백파더’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의자에 앉은 ‘백파더’ 백종원과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양세형의 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도 공개됐다. 백종원과 그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할 양세형은 차진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백종원, 양세형과 함께 요리 경쟁을 시작할 요린이들은 홈페이지(http://m.imbc.com/wiz/ent/100father/apply/)를 통해 절찬 모집 중이다. 20일 오후 5시 첫 방송. /뉴시스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